

■ 교육

‘대학 순위’에 목매다는 대학들



▲ 사진=shutterstock

대학들이 유달리 신경 쓰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 순위(랭킹)이다. 왜 그럴까?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미국 대학 순위/랭킹을 내기 시작했을 때 각 대학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매체의 대학 순위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과거 명성을 누리던 일부 대학들은 랭킹에서 처지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별 불일 없던 대학들이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기를 쓰고 순위/랭킹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학 순위/랭킹에는 함정이 많다. 자의적 요소가 많은 것이다. 각 대학들은 유에스 뉴스가 매기는 순위가 교육 수준을 알리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이를 참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쓴다.

미국 대학 순위/랭킹을 정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학 합격률이다.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자 수가 늘면 합격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각 대학은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지원해 달라는 이메일이

나 편지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 예년의 경우 이런 편지는 특히 SAT나 PSAT시험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다.

어떤 학생들은 "하버드에서 나를 오라고 했어!"라며 흥분을 하지만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런 편지를 받은 사람은 차고 넘친다. 어떤 대학은 일찍 지원을 하면 원서비, 에세이 등을 면제해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원서를 일단 제출하면 후속 서류를 내지 않아도 그 학생을 지원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학로서는 손해가 아니다.

대학들의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는 표준화 시험 점수다. SAT, ACT점수가 높은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의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 대학들이 쓰는 필수 가운데 SAT, ACT점수 제출을 옵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점수가 높은 학생만 제출하게 되고 낮은 학생은 내지 않는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만 점수를 제출하므로 대학의 전체 SAT점수 분포는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대학들은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학교 랭킹/순위를 올리려고 한다.

명성이 높다고 나에게도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칼럼

부동산 시장의 가상 Open House

‘일장일단’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도 장점이 있으면 동시에 단점이 있듯이, 모든 것이 양면성을 보여줄 때가 많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지만,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IT기술이 일반화 되고 있다. 새 리스팅을 마켓에 올려도 예전처럼 Open House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수의 인원을 조심스럽게 소인할 때도, 여러가지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가 준수해야만 한다. 특히 방문자 모두 새로 생긴 부동산 양식(Coronavirus Property Entry Advisory and declaration Form)에 서명을 해야만 집 내부를 볼 수 있으니 바이어 입장에서선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그나마도 에이전트 없이는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시기를 반영해서 예전처럼 바이어들을 위해 마켓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요즘은 유튜브 영상 제작은 물론 3D구조 영상, 드론을 이용한 원격 촬영, Virtual Staging, 비대면 전자 사인, Zoom 미팅 등 고도의 Technical support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팬데믹 시기가 지나가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많은 기술적 발전과 진보가 있으리라 믿는다.

역사적으로도 대 전염병(Pandemic)은 후대의 인간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4세기 유럽에서 퍼졌던 흑사병(Pest)으로 많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손글씨로 인쇄하던 것들을 기구로 대체하는 ‘인쇄술’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으며, 위생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마시는 물(상수도)과 구분하여 폐수(하수도)를 땅 밑으로 설치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인간을 걱정하고 인간 중심을 들여다보는 르네상스 문화를 시작하며 중세문명의 꽃이 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포스트 코로나(Post-이후 Corona)라는 말을 많이 쓴다.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 경계에서



▲ 부동산 시장에서 IT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우리는 스스로 방어체계를 구축해서 미래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모든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Non-face-to-face) 시대에 생계를 위해서도 새로운 전략을 찾아 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을 On-line 속에서 구축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On-line, 디지털과 함께 Off-line과 아날로그 또한 같이 병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시기에 변화에 편승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불확실한 시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꾸준히 참여하고 연구하며 비평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ANGIE KIM
REDPOINT REALTY
 Honored Vice President
 (714) 707-036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Certified Short Sale and Foreclosures Specialist (#190418)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